

## ‘셋서방(소대남편)’ 등장 사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적 고찰

- 정조 『심리록』을 통해 추론한 ‘셋서방’의 신분적 위상을 중심으로 -

이수곤\*

<차례>

1. 연구 목적
2. 조선후기 문학 속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
3. 『심리록(審理錄)』을 통해 본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
4. ‘셋서방’ 등장 사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재검토
5. 나오면서

### <국문초록>

기존 논의에서는 <어이려뇨~>를 다음과 같이 이해하였다. 첫째,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중세 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에 있다. 둘째, 중세 질서에 대한 반항 의식을 표출하기 위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가상 세계를 시적 배경으로 하였다.

기존 논의에 대한 반성적 검토에서 본고는 비롯되었다. 조선후기 정조 때 살인 사건 관련 기록인 『심리록』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어이려뇨~>를 비롯한 ‘셋서방’ 등장 사설시조는 현실에 기반을 둔 일상적 삶을 풀어낸 노래이고, 일상적 인간의 모습·육망·갈등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가부장적 질서가 엄격했던 조선후기였기에, ‘셋서방’이 표면으로 드러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심리록』을 통해 ‘셋서방’의 위상을 명확히 밝히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이유이다. 본고가 지닌 문제점이기도 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논의를 준비 중이다.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강의전담조교수

□ 사설시조, 셋서방, 『심리록(審理錄)』, 일상성, 문학사적 의의

## 1. 연구 목적

『소대남편[셋서방, 間夫]』이 등장하는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에서 ‘셋서방’이 출현하는 사설시조의 특징으로 “겉으로 대놓고 드러냄”에 주목하였다.<sup>1)</sup> ‘셋서방’은 불륜 상황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기에, 셋서방과의 관계를 겉으로 대놓고 드러낸 시적 화자의 태도는 다소 상식에 벗어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스람마다 못할 것은 남의 님씩다 情 드러 늦코  
 말 못하니 인연하고 통스정 못하니 나 죽기구나  
 쫓이라고 쫓아를 내며 님히라고 홀터를 님며  
 가지라고 썩거를 님며  
 히동청 보라미라고 제 밥을 가지고 굶여를 낼가  
 다만 秋波 여러 번에 남의 님을 후려를 내여  
 집신 간발하고 아닌 밤중에  
 월장 도쥬하야 담 넘어 갈 제  
 식이비 귀먹쟁이 잡녀석은 남의 속늬는 조금도 모로고  
 안인 밤중에 밤스람 왔다고 소리를 칠 제  
 요 너 간장이 다 녹는구나  
 춤으로 네 모양 그리워서 나 못 살게네. 『고대본 악부』

사랑의 대상이 입자 있는 남자이기에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 누구에

1) 이수근, 『소대남편[셋서방, 間夫]』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59쪽.

게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 사정이 딱하고 안타깝다. “통스정 못하니 나 죽  
깃구나” 식의 탄식이 두 번이나 나온다. 불륜은 일부일처제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즉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이기에, “드러 늦코 말 못하”  
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정상적이다. 그런데 ‘셋서방’ 등장하는 사설시조는  
달랐다. ‘셋서방’이 등장하는 4편의 사설시조 모두 감춤의 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을 앞선 논문에서 주목하여 살펴본 것이다.

어이려뇨 어이려뇨 시어머님아 어이려뇨  
소대남편의 밥을 담다가 늦주걱을 덜켜 부러뜨렸으니  
이를 어이하려뇨 시어머님아  
저 아기 너무 걱정 마라  
우리도 젊었을 때 많이 꺾어 보았노라. 『진본 청구영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대화인데, 그 내용이 파격적이어서 널리 알려진  
사설시조이다. 바람난 이야기를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에게 말하는 여  
인과 나도 젊었을 때 많이 그랬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며느리에게 응  
답하는 시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불륜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도 이런 상황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셋서방’ 출현 사설시조 4편 모두 감춤을 전제로 하지 않아 해석과 가치  
판단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작품 경향을 기존 논의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거부 의식의  
발로 또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대한 전면적 거부로 평가하고 있는 듯 보인  
다. 즉 반중세적 성향의 작품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도 되겠다.

기존 논의의 대체적인 경향은 이도흙의 연구 결과로 가늠할 수 있다.  
이도흙은 <어이려뇨~>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륜의 연대를 형성하였

다고 보고, 그 이유를 “공동의 죄의식과 가부장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를 당하였다는 피해의식”의 발로로 파악하였다. 그러면서 “가부장과 가부장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유교 이데올로기 및 훈육체계를 전면으로 거부하며 그들의 권력 기반인 가족질서와 재력에 균열을 가하겠다는 선언”으로 평가하였다.<sup>2)</sup>

이러한 견해를 펼치기 위해, 즉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기 위해 대개 기존 논의는 <어이려뇨~>의 배경을 가상으로 설정된 인위적인 이야기로 상정하였다. 즉 배경이나 시적 상황이 현실적이지 않음을 전제로 논의를 개진한다. 김홍규는 “불가능한 대화를 억지로 연출한 희극적 가상”이라 하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자기 폭로”, “불가능성이 중첩된 작중상황은 웃음 속에서 현실적 개연성의 여지를 스스로 지워버린다.”고 하였다.<sup>3)</sup> 즉 어떠한 의도를 표출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에서는 벌어지기 힘든 상황을 연출한 것임을 전제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여기서 한 번 생각해볼 것은 현실과 작품의 관련 양상이다. 일찍이 최재서는 30년대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리얼리즘의 심화와 확대라 평가하였다. <날개>는 작가의 내면세계를 탁월하게 그려내었고, <천변풍경>은 청계천 주변 서민의 생활상을 카메라가 돌아가면서 찍듯 여실하게 형상화하였다고 평하였다. 그러니깐 <천변풍경>은 그 당대의 생활상을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면, <날개>는 당대의 생활상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라 할 수 있을 듯하다. 둘 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천변풍경>은 현실을 ‘재현’했고 <날개>는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상징화하여 제시한 작품이다.<sup>4)</sup>

2) 이도훈, 『사설시조 담론 주도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지향성』, 『한국시가연구』 제36집, 한국시가학회, 2014, 109~10쪽.

3)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200~1쪽.

이를 빗대어 설명하자면, 기존 논의는 <어이려뇨~>를 ‘리얼리즘의 심화’로 규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날개>처럼, 작가의 내면 인식을 드러내는 심리 기제가 작용하여 상징적으로 표상한 것이 <어이려뇨~>이다.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래한 이유는 가부장으로 대표되는 유교 질서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의미를 지니기에 기존 논의의 연구자들은 사설시조를 근대로 가는 길목에서 발현된 장르로 평가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어이려뇨~>를 유교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읽고 그 의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적 삶 속에서 포착된 한 장면을 극적 구성으로 꾸며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도록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기존 선행 연구가 전자에 입장이라면,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에서 서 있다. 본 연구의 입장을 최재서의 용어로 표현하면, <어이려뇨~>를 ‘리얼리즘의 심화’가 아닌 ‘리얼리즘의 확대’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언가를 말하기 위한 가상현실이 아닌, 그 당대의 실제 현실에 바탕하여 형상화한 작품으로 이해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어이려뇨~> 비롯한 ‘셋서방’ 등장 사설시조는 현실에 기반을 둔 일상적 삶을 가벼운 어조로 풀어낸 노래이고, 종래의 규범적 세계에서 벗어나 일상적 인간의 모습·욕망·갈등 등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정조 때 사형(死刑)에 대한 판결을 모아 놓은 『심리록(審理錄)』을 중심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심리록(審理錄)』의 분석을 통해 ‘셋서방’과 여타 불륜 상대남의 신

4)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312~23쪽.

분적 위상치를 알아봄으로써 <어이려뇨~>가 당대 실제 삶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낸 사설시조일 가능성이 있음을 개진하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셋서방’은 법적으로 인정된 남편은 아니지만, 단순히 일회적인 성적(性的) 상대도 아닌 듯하다. 애매하지만 남편과 부인 사이에 위치하는 존재였던 듯한데, 그래서 간부(間夫)로 불렸는지도 모르겠다. ‘셋서방’의 신분적 위상을 밝히고, <어이려뇨~>의 배경이 당대 실제 삶에 기반을 두고 있을 가능성을 크다면, <어이려뇨~>의 문학사적 가치 혹은 시가사적 의의도 선행 연구와는 다르게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사설시조에 대한 시학적 면모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적잖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2. 조선후기 문학 속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sup>5)</sup>

셋서방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는 불륜임에도 불구하고, 시적 화자는 숨기려고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를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을 통해 찾으려고 한다. 본고는 조선 시대에 남자에게 첩이 있듯, 여자에게는 ‘셋서방’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다소 거친 의문에서 비롯되었다. 그 실상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II장에서는 조선후기 문학 속에 등장하는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을 가늠해보려고 한다. ‘셋서방’은 ‘소대남진, 뒷남편[後夫], 간부(間夫)’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는데, <어이려뇨~> 외에 3편의 사설시조에 등장한다.

5) II장의 내용 중 사설시조와 야담을 거론한 부분은, 논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앞서 거론한 「『소대남편[셋서방, 間夫]』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한 것이다.

밋남편 廣州 | 섹리뷔 장스  
소대남편 朔寧이라 닛뷔 장스  
눈경의 거론 님은 쭈작 쭈두려 방망치 장스  
돌호로 가마 흥도깨 장스 빙빙 도라 몰레 장스  
우물전에 치다라 근맹근맹 헛다가  
위령충창 풍 섹져 물 듬복 썬느는 드레곡지 장스  
어디 가 이 얼골 가지고 죠리 장스를 못 어드리 『진본 청구영언』

이제껏 상대한 남자로 여섯 장사치를 거론하였다. 그런데 본남편과 셋서방 그리고 눈짓에 맺은 임으로 나눈 것으로 봐서, 이 여섯을 같은 위상을 갖고 있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본남편과 셋서방은 특정 지역인 “광주”와 “삭령”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 “눈경에 거론 님”과 다른 위상을 가진 존재로 여길 수 있다. 즉 ‘셋서방’은 본남편은 아니지만, 거주지가 거론되는 것으로 봐서 남다른 관계임을 드러내고 볼 수 있겠는데, 적어도 하룻밤으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눈짓으로 맺은 임과는 다르다 할 수 있겠다. ‘셋서방’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하였다.

밋남진 그 놈 자총 병거지 쓴 놈  
소디 서방 그 놈은 샷병거지 쓴 놈 그 놈  
밋남진 그 놈 자총 병거지 쓴 놈은  
다 뵈 눈에 경어이로되  
밤중만 샷병거지 쓴 놈 보면 실별 본 듯 헛여라 『육당본 청구영언』

본남편과 셋서방의 성기를 비교하고 있는 민망한 노래다.<sup>6)</sup> 일희성 만

6) “밋남진 그 놈”에서 “놈”을 “밋남진[본남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봐서, “비칭(卑稱)”을

남이라도 남편과 비교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삿병거지 쓴 놈”을 보면 셋별 같다고 한 것을 보면 일회적인 만남은 아니다. 셋서방은 본 남편과 성기를 비교할 만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상대이다. 셋서방은 사회적으로 표면화된 존재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셋서방이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진 존재인지는 명확하게 단정하여 말하기 곤란하다. 다만 일회적이고 찰나적 쾌락을 위해 만나는 부류는 아니었음은 추측 가능하다. 아래 사설시조는 위에 거론한 사설시조보다 셋서방의 위상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각시너 내 쫓이 되나 내 각시의 後스난편이 되나  
 꽃 본 나뻬 물 본 기러기  
 줄에 조춘 거미 고기 본 가마오지  
 가지에 젖이오 슈박에 족슬이로다  
 각시너 하나 水鐵匠의 딸이오 나 하나 짐匠이로  
 솟 지고 나쁜 쇠로 가마 질가 호노라. 『진본 청구영언』

천생연분임을 뒤늦게 깨달은 것인지 한때 호기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두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애하고 있다. 각시가 내 첩이 되거나 내가 각시의 “後스난편”이 되겠다고 한다. 이로 보건대, 확언할 수 없고

---

써서 냉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한 논의가 있다. 이 논의 역시 대개의 기존 논의가 그렇듯, 사설시조를 중세에 대한 비판의식의 발로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띠고 있다. 본고는 이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놈”은 본남편이 아닌 ‘본남편의 성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온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논의는 아래 논문을 참고하길 바란다.

이형대, 『사설시조의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304~6쪽.

이수곤, 『결혼 후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인식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국제어문』 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387~8쪽.

또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첩과 ‘뒷남편[後夫]’은 엇비슷한 위상을 가진 존재로 볼 수도 있겠다. 사설시조는 문학이니 뒷남편[後夫]의 위상을 현실과는 무관한 존재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철저히 상상력의 소산으로만 단정할 수 있을까? 문학적 상상력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간에 현실과 연결되어 있게 마련이라는 것이 본고의 기본 입각점이다. 다만 관련 양상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셋서방’의 위상을 사설시조보다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가 몇몇 산문 문학에 보인다. 조선 후기 야담집인 『기이재상담(紀伊齋常談)』과 『유년공부(酉年工夫)』가 그것이다. 못난 신발도 예쁘게 고치는 갓바치를 부러워하던 처녀가 “못난 얼굴을 고치는 모형은 없나요?”라고 묻자, 갓바치는 송이버섯같이 생긴 것을 대면 얼굴이 예뻐진다고 속여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다. 이를 처녀의 아버지가 알게 되고, 복수를 위해 갓바치의 아내를 범할 계획을 세운다. 처녀의 아버지는 임신한 갓바치 아내에게 아래와 같이 말한다.

“갓바치의 아내는 남편을 둘 두지 않으면 귀 없는 아기를 낳지. 갓바치는 아기는 잘 만들지만 귀는 못 만들거든. 내 그대가 다른 남편[後夫]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뱃속의 아기도 귀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지.”

남편을 둘 두지 않으면 귀가 없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였다. 이에 대해 갓바치 아내는 “귀 없는 아기를 낳느니 다른 남자와 자더라도 온전한 아기를 낳겠어요.”라고 하였다. 남편을 둘 두어야 한다는 갓바치 말도, 이에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는 갓바치 아내의 태도 모두 의아하다. ‘後夫’의 존재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유년공부』에 전하는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한

계집이 자신의 집에서 셋서방과 방사를 벌이다 본남편에게 들키자, 본남편을 마구 때린 이야기가 그것이다.<sup>7)</sup>

이상과 같이 사설시조 4수와 몇몇 야담을 보았을 때, 문학 작품이란 점을 감안하더라도 ‘셋서방’의 위상은 여타의 불륜 상대남과는 다른 듯 보인다. 어느 정도 공인된 존재로 보이긴 하는데, 이때 ‘어느 정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외적으로 표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남성에 대한 첩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첩같이 걸으로 드러난 존재로서의 위치는 아닌 듯싶다.

실제 조선후기 일상적 삶의 모습 중에 셋서방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문학 외적 자료 - 사회 역사 자료는 없는가? 앞서 말한 대로 외적으로 표면화된 존재가 아니기에 명확하게 단정하여 말할만한 단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다. 일부일처제와 같은 제도나 정조(貞操)와 같은 유교적 관념은 양반 사회에서는 지켜졌을지 몰라도, 양인이나 노비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조선후기의 인물 박의훤은 양인(良人)인데, 다섯 명의 처를 두었다. 마지막 맞이한 처 여배를 제외하고 모두 다른 남자와의 관계로 박의훤의 곁을 떠났다. 가령 넷째 처인 가질금은 5~6명의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이는 “상도(常道)를 벗어난 현상이었다기보다는 유교적 교양에 매몰되지 않았던 당시 양인의 일반적 삶의 양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하였다.<sup>8)</sup>

노비의 경우는 양인과 비슷하거나 더 일반적인 현상이었던 듯하다. 막

7) 정병설, 『조선의 음담패설』, 예음, 2010, 152쪽.

8) 문숙자, 『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9, 97쪽.

정이란 노비는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돌아왔는데, 그 전의 행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뻐하며 맞이했다고 한다.<sup>9)</sup> 그러면서 “노비와 평민의 세계에서 성윤리는 의외로 자유분방하였으며, 그만큼 일부일처제 윤리와 그에 상응하는 가족형태는 유동적이었다.”라는 견해를 내놓았다.<sup>10)</sup> 실제로 하층 여성들이 두 남편을 두는 일이 흔히 있다고 한다.<sup>11)</sup> 하층으로 내려 갈수록 남정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sup>12)</sup>

### 3. 『심리록(審理錄)』을 통해 본 ‘셋서방’의 존재와 그 위상

유교의 나라인 조선은 미혼 간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도 화간(和姦)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만큼 성 관련 통제는 심했다.<sup>13)</sup>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 이 통제가 하층민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 평민을 포함한 하층민 사이에서 성문화는 상당히 개방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sup>14)</sup> 이영훈의 보고에 따르면, 노비는 일부일처제의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았고,<sup>15)</sup> 심지어 남편과 아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하층민을 중심으로 성 관련 사건이 빈번하였다. 정조 때 일어났던 사형 범죄를 기록한 『심리록(審理錄)』을 통해 그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 보겠다.

---

9) 이영훈, 『노비의 혼인과 부부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9, 110쪽.

10) 위의 글, 113쪽.

11) 정병설, 앞의 책, 66쪽.

12) 이영훈, 앞의 글, 113쪽.

13)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태학사, 2009, 54쪽.

14) 정병설, 앞의 책, 128~9쪽.

15) 이영훈, 앞의 글, 117쪽.

총 1,112건의 사형범죄 중 인명사건[살인]은 1,004건이었다. 이중 양반층을 제외한 평민과 천민 사이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86.2%를 차지했다. 성관계가 원인이 된 인명사건은 119건으로 ‘갈등·우발’과 재물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119건 중 평민층과 천민층이 차지하는 수는 각각 99건과 12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이 당시 성은 살인을 초래할 만큼 갈등의 핵심에 놓여 있으며, 주로 평민층과 천민층을 중심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sup>16)</sup> 성 관련 사건의 구체적인 실상을 살펴서 ‘셋서방’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위상을 알아보겠다.

이득표의 처 안 여인이 임덕중과 몰래 정을 통하다가 붙잡히자 임덕중이 도망쳤다. 이득표가 쫓아가 임덕중을 칼로 찔렀는데, 바로 그 날 죽었다.<sup>17)</sup>

임인년(1728) 평안도 용강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임덕중의 귀와 코가 베어 떨어져 나갔고, 뒤통수와 오금은 칼에 찔린 상처가 뼈 있는 데까지 났다고 하니 상처가 꽤 깊었다. 정조는 이득표를 즉시 풀어주라고 판결을 내린다. 상해한 장소가 간통한 현장에서 직접 붙잡은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명률』에 의거한 조치였다. 안 여인에게는 세 차례 형신을 한 뒤 절도에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삼으라고 분부하였다.

정조의 판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심정이 서술되어 있다. “안 여인이 이득표와 혼인하여 함께 살면서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는데, 갑자기 도망가 임덕중에게로 간 것은 그 정상이 너무나도 통분스럽다.”고 하였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는 술회이다. 다음 사건을 보자.

16) 심재우, 앞의 책, 155쪽.

17)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정조 심리록』 9권, 한국학술정보, 2010. 평안도 용강 이득표의 옥사.

황용금의 처 도 여인이 김만익과 함께 도망치자 황용금이 수소문하여 찾아서 도 여인을 붙잡아 모난 몽둥이로 때렸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다.<sup>18)</sup>

이 사건 역시 임인년에 벌어졌다. 도 여인은 김만익과 3년이나 살고 있었다. 도 여인을 찾고 나서는 정수리가 찢어지고, 머리가 깨져 뼈가 드러날 정도로 잔혹하게 죽었다. 간통 현장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살인했지만, 『대명률』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도 여인이 간통을 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급기야는 도망까지 불사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황용금은 지극히 궁박하고 지극히 가난한 무뢰한으로 어렵게 처 하나를 얻었다가 갑자기 잃고서 배고파도 끓일 밥이 없고 추위도 입을 옷이 없었으니, 돌아보건대 어찌 일찍이 하루라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겠는가.

정조 판부의 일부분이다. 경제적으로 무능한데다가, 성품도 막되어 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는 무뢰한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부인을 잃고서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구제불능이란 소리인지도 모르겠다. 한마디로 변변치 못한 남편이다. 도 여인이 성적 욕망이 강한 여인일 수도 있겠지만, 남편의 무능함과 무례함이 김만익과 도망가는 데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윤형부가 김영세의 처 이 여인(李女人)을 몰래 간통하였는데, 이 여인이 또 김악남과 사사로이 정을 통하였다. 김영세가 김악남과 싸움을 벌여 다투자 윤형부가 김악남을 죽이고자 음식에 독을 넣어 다음 날 죽게 하였다. 처음에는 김영세가 고발당하였으나 나중에는 윤형부가 원범이 되었다.<sup>19)</sup>

18) 『심리록』 9권 경상도 청하 황용금의 옥사.

19) 『심리록』 16권 평안도 삼등 윤형부의 옥사.

을사년(1785) 평안도 삼등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다. 김영세의 처 이 여인은 윤형부와 몰래 간통을 하고서도 또 김악남이란 자와 사통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이 여인의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한 남자로는 만족한 성생활이 불가능한 여인 같아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역시 본 남편 김영세의 능력이나 인물 됴됨이가 문제이다. 즉 별 볼 일 없는 인사였던 것이다. “김영세란 자는 혼자서 생활을 꾸려 가지 못하고 구걸하는 자로 지금까지 살아 있는지도 기필할 수가 없다.”라는 구절이 이를 입증한다.

윤형부와 김악남 둘 다 어차피 본 남편이 아닌 간부(奸夫)일 텐데, 윤형부가 김악남을 죽인 이유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김영세를 체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지만 여러 해가 지나는 동안에 예전부터 떠돌아다니는 거지라고 핑계를 대면서 찾으려 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판단해 보건대, 간혹 집에 들어올 뿐 남편 구실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듯하다. 그런 가운데 윤형부는 이 여인과 몰래 간통을 하였다.

그렇다면 굳이 멀리 살고 있는 또 다른 간부 김악남을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이 여인과 잠자리를 약속하고 서로 편리할 때 만나면 되는 것 아닌가. 갑자기 군중들이 모여 있는 속에서 남의 손을 빌려 독약을 먹여 죽일 꾀를 내었겠는가. 왜 죽였을까? 단순 시기심의 발로인가, 같은 간부이지만 위상면에서는 다소의 차이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김영세는 이 소사의 본 남편이고 김악남은 이 소사의 간부(奸夫)이다. 윤형부가 과연 최후에 간음하고서 그의 남편을 제거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면 이치상 의당 김영세가 먼저이고 김악남이 그 다음이었을 것이다. 또 만일 김영세가 하잘 것이 없어 그대로 두고 김악남에게 노여움이 사무쳤다면, 자기에게 마음이 쏠려있는 음탕한 부인네와 은밀하게 꾀를 내어 해치우더라도 ... (하략)

“자기에게 마음이 쏠려있는 음탕한 부인네와 은밀하게”라는 구절을 보건대, 김영세는 본남편이지만 하잘것없는 존재이고, 이에 윤행부의 위상이 남편에 버금가는 존재로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이 가능하다. 분명 김악남과는 위상차가 있었음을 알리는 지표로 여길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계축년(1793) 개성부에서 벌어진 음세형의 옥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음세형이 화처인 순량이 주지현과 몰래 간통하자, 주지현을 때리고 발로 차서 이튿날 죽게 하였다.<sup>20)</sup>

화처는 노리개첩이다. 첩 순량이 주지현과 간통을 하였다. 그런데 “순량과 간부(間夫) 주지현의 낭자한 음행은 모든 사람이 다 알았는데, 음세형이란 자는 어리석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 여러 차례 간음하는 현장에 갔으면서도 적반하장의 봉변을 당할까 두려워하였다.”고 하였다. 음세형이란 자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었다. 그런데 화처인 순량은 취하는 남자마다 거처도 있고 그 거처도 근본이 있다 하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는 판이하여, 어떤 남정네와도 관계를 맺는 부류와는 다른 듯하다.”고 하였다. 주지현은 신원이 확실한 사람이었으며, 순량과의 관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주지현은 그냥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일회적인 상대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할 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정미년(1787) 영암에서 벌어진 천업봉 옥사는 의미가 심장하다.<sup>21)</sup> 천업봉의 아우 계동이 문가(文哥)의 첩에게 장가를 들었는

20) 『심리록』 23권 개성부 음세형의 옥사.

21) 『심리록』 17권 전라도 영암 천업봉의 옥사.

데, 문가가 돌려 달라고 요구했는데 계동이 듣지 않았다고 한다. 이 기록에서 “첩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후부(後夫)”의 위상이 명확하게 되었다는 것일까. 다음의 기록을 보자.

이명홍이 일찍이 私婢 一色을 간통하고서 소원하게 버려두었는데, 박동금이 또 간통하니 박동금을 질질끌고 구타하여 3일 만에 죽게 하였다.<sup>22)</sup>

이명홍이 정식으로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일색은 4년 동안 남편으로 받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색과는 달리 이명홍은 몇 달에 한 번씩 집에 갈 정도로 소원하였다. 일색은 상대를 박동금으로 바꾸었다. 이웃 마을에서 아는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명홍이 박동금을 죽인 것이다. 기록대로 “갑자기 시기심이 발동하여 멋대로 차고 때렸”다. 그런데 “이명홍과 박동금이 모두 지아비이다.”라고 하면서, “비록 정이 새 남자에게 옳아갔다고 하더라도 의리상 옛 남자를 차마 잊을 수 있는가.”라는 진술이 기록 끝에 보인다. 정조는 박동금을 지아비로 간주하였다.

위에 살핀 자료를 갖고 ‘셋서방’의 존재와 위상을 단언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추측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증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서방은 본남편이 아닌, 불륜의 상대남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회적이고 찰나적인 쾌락을 즐기려는 의도에서 만나는 상대는 아니었다는 것이 본고의 판단이다. 즉 본남편도 아니고, 단순한 불륜 상대남도 아닌 다소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는 존재가 ‘셋서방’이다. 위상이 이렇기에 ‘셋서방’은 다소 특이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남자에게 있어서 첩과 같은 존재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인에게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며, 일종의 ‘공공연

22) 『심리록』 20권 평안도 정주 이명홍의 옥사.

한 비밀’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을 듯하다.

#### 4. ‘셋서방’ 등장 사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재검토

『심리록(審理錄)』의 기록을 하나 더 본 후 <어이려뇨~>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검토하고, 이에 기반하여 문학사적 의의 혹은 가치에 대한 본고의 견해를 개진하고자 한다.

최 여인이 남편의 당질인 조광신과 몰래 간통하다 며느리 박 여인이 자신의 추한 소문을 퍼뜨릴까 겁이 나 목을 조르고 이어 칼로 찢러 그 날로 죽게 하였다.<sup>23)</sup>

최 여인[최아기]을 음욕으로 가득 찬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 음욕 즐기기 버릇이 되어버린 최 여인에게 박 여인은 시집은 첫날부터 눈엣가시였다. 어떤 식으로든 입을 막아야겠다는 하나의 생각으로 며느리를 대했고,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만 것이다. 최아기는 남편의 사촌 형제의 아들 그러니깐 사촌 조카와 계묘년에서 을사년까지 3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간통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엄연히 일어난 사건이었다. 을사년(1785) 평산 최아기의 옥사 관련 기록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록을 통해 보건대, <어이려뇨~>의 등장인물을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다. 본남편은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지는 ‘셋서방’, 셋서방의 밥을 담다가 주걱을 부러뜨리고 그 걱정을 시어머니에게 토로하는 ‘며느리’, 며느리의

23) 『심리록』 15권 황해도 평산 최아기의 옥사.

걱정은 나 역시 젊었을 적에 많이 겪었던 일이라며 위로하는 ‘시어머니’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존재할 수도 있는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다소 극단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현실성 없는 얼토당토 않은 인물이 아님은 위 기록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불가능한 대화를 억지로 연출한 희극적 가상”<sup>24)</sup>이라는 판단은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적대적이었던 시어머니들과 며느리들이 남성으로부터 억압당하고 배제 당하던 여성으로서 연대하여 가부장과 가부장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유교 이데올로기 및 혼육체계를 전면으로 거부하며 그들의 권력 기반인 가족질서와 재력에 균열을 가하겠다는 선언”으로 본 시각 역시 다시 한 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sup>25)</sup>

사설시조의 장르적 특성을 하나로 규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존 논의와 달리 사설시조에는 일상적이고 찰나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 또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시조는 주로 기생방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에 진지한 어조와 함께 가벼운 말놀이로서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사설시조의 사설시조다움에 결코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기본 시각이다.

<어이려뇨~> 등 셋서방이 등장하는 사설시조를 유교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읽고 그 의의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일상적 삶 속에서 포착된 한 장면을 극적 구성으로 꾸며 가볍게 웃고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파악하여 그 가치를 평가할 수도 있다. 기존 선행 연구가 전자에 입장이라면, 본 연구는 후자의 위치에 서 있다. 이 두 입장에 입각한 연구가 각각 꾸준히 그리고 균형적으로 수행되어 상보적 관계를

24) 김홍규, 앞의 책, 200쪽.

25) 이도흠, 앞의 논문, 109~10쪽.

형성할 때, 사설시조의 참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 5. 나오면서

현실과 예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정반대일 수도, 방향성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관련 없는 것처럼 비쳐지기도 할 것이다. 둘의 방향이 어쩔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게 마련이다. 아니 맺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자의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과 현실의 관련 양상을 살피는 작업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까다로운 성격을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 살펴본 몇 편의 고전 산문 기록과 『심리록(審理錄)』만의 분석을 갖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다. 양적인 면에서 턱없이 모자란 것은 물론, 설혹 다량의 자료를 분석하였다손 치더라도 단정 짓는 작업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셋서방’의 존재가 표면화될 성격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본고는 시론적(試論的)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사설시조를 진지한 문학으로 바라보는 기본 시각 자체와 그 시각으로 문학사적 의의를 논하려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논의를 비판하였다. 그러나 본고 역시 단정이나 확정보다는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한, 시론적(試論的) 고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족한 논의가 되고 말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막연하지만, 『조선왕조실록』, 정약용의 『흙흙신서(欽欽新書)』, 『일성록(日省錄)』, 『무원록(無冤錄)』, 『추관지(秋官志)』 등의 분석 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면 본 논의가 더 타당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참고문헌

-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정조 심리록』 1~5, 한국학술정보, 2010.
- 김홍규, 『사설시조의 세계』, 세창출판사, 2015, 1~308쪽.
- 문숙자, 『양인의 혼인과 부부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9, 1~342쪽.
-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 통제』, 대학사, 2009, 1~346쪽.
- 이도흠, 『사설시조 담론 주도층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예술적 지향성』, 『한국시가연구』 제36집, 한국시가학회, 2014, 80~117쪽.
- 이수근, 『‘결혼 후 찾아온 사랑’에 대한 인식의 시대적 변천 양상 고찰』, 『국제어문』 58집, 국제어문학회, 2013, 381~411쪽.
- 이수근, 『‘소대남편[셋서방, 閻夫] 등장 사설시조의 특성 고찰』, 『한국고전연구』 3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41~65쪽.
- 이영훈, 『노비의 혼인과 부부생활』, 한국고문서학회, 『조선시대 생활사2』, 역사비평사, 2009, 1~342쪽.
- 이형대, 『사설시조의 여성주의적 독법』, 정출현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2003, 1~338쪽.
- 정병설, 『조선의 음담패설』, 예옥, 2010, 1~208쪽.
- 최재서, 『‘천변풍경’과 ‘날개’에 관하여-리얼리즘의 확대와 심화』, 『최재서평론집』, 청운출판사, 1961, 1~443쪽.

ABSTRACT

A Study on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in SaseolSijo(辭說時調) in which SaesSeoBang(셋서방) appears

Yi, Su-gon

In the existing discussion, I understood the following to 〈How to ~ (어이러노~)〉. First, the main content of this song is in the rebellion against the medieval order. Second, in order to express the rebellion against the medieval order, the virtual world which can not be realized in reality was taken as a poetic background.

This study is based on a reflection review of existing discussions. During the late Chosun dynasty, the main subject of the study was 『SimRiRok(審理錄)』, which is related to the murder case. The results are as follows. 〈How to ~ (어이러노~)〉 and other SaseolSiJo(辭說時調) appeared in the ‘SaesSeoBang(셋서방)’ is a song of everyday life based on reality. We express everyday human form, desire, and conflict as they are. From these two points, I have found that there is literary historical significance.

Since patriarchal order was strict in the late Joseon period, it is presumed that it was difficult to expose the ‘SaesSeoBang’ to the surface. It is the reason why there was a limit to clarify the status of ‘SaesSeoBang’ through 『SimRiRok』. It is also a problem of this paper. We are preparing a follow-up discussion to supplement this.

**Key Words** SaseolSiJo(辭說時調), SaesSeoBang(셋서방, Paramour), SimRiRok(審理錄), Everyday Life, The Significance of Literary History

논문투고일	: 2016.10.15
심사완료일	: 2016.11. 2
게재확정일	: 2016.11.15